

No. 41

외측 반월상 연골손상의 분석 - 비원판형과 원판형의 비교 - Analysis of Lateral Meniscus Injury - Non-Discoid Versus Discoid -

울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

조성도 · 고상훈 · 곽창열 · 정지연 · 서동교

서 론

저자들은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원판형과 비원판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원인, 형태, 동반손상 의 여부 및 치료방법 등을 분석하여 임상적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은 129례를 대상으로 후향적 검사를 시행하였다. 환자의 평균 연령은 37.6(15세~74세)였으며, 모두 관절경 수술을 시행 받았다. 외측 반월상 연골을 "비원판형"과 "원판형"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연령 및 성별 분포, 손상 원인과 파열 형태, 동반손상 여부와 치료방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.

결 과

비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71.4%,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28.6%가 있었다. 연령 및 성별 분포는 비원판형은 남자(71.7%)에서 30~40대에 많이 발생하였고 원판형은 남자(81.1%)에서 10~40대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발생하였다. 손상 원인은 비원판형은 외상(86.9%)중 운동 경기(63.7%)로 인한 손상이 많았고, 그 중에서도 축구 손상(68.6%)이 많았다. 원판형은 외상(81.1%)중 운동경기(46.6%)와 실족(33.3%)이 많아 상대적으로 경미한 외상이 많았다. 파열 형태는 비원판형, 원판형 모두 복합파열(45.6%:35.1%), 종파열(21.7%:27.0%) 순으로 많았다. 손상 부위는 비원판형, 원판형 모두 중위부에서 가장 흔하였다.

비원판형은 동반 손상(56.5%)이 많았고, 원판형은 단독손상(78.3%)이 많았다. 관절 연골 손상(15.5%)이 동반된 경우가 비원판형은 15.2%, 원판형은 16.2%에서 나타났으며, 이 경우 증상 발현 후 수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. 치료는 비원판형은 부분절제술(59.7%)을 많이 시행하였으며, 원판형은 변연부 종파열과 횡파열이 동반된 복합파열이 많아 아전절제술(45.9%)을 많이 시행하였다

결 론

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비원판형인 경우 동반손상이 많았으며 원판형인 경우 비원판형에 비해 경미한 외상에 의해 많이 발생하였으며 단독손상이 많았다. 파열 양상으로 인해 비원판형은 부분절제술을 원판형은 아전절제술을 많이 시행하였고, 증상 발현 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는 연골 손상이 동반되기 쉬워 조기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

색인단어: 슬관절,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, 원판형, 비원판형